

목회자 자필 답글

기다리는 사람들

강석역 목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 간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생각하는 희망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다. 이것을 신앙을 가졌는지의 여부와 떠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단기간 기다림이나 몇해에는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었을 것이고, 만일 삶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세속적인 속박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때 그 자기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기다림이나 소망의 대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매우 중요한 영성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실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삶이다.

성경 전체에는 기다림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성경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네맛을 볼 때, 그에게는 아들과 땅과 열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때문에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삭과 야곱의 기다림, 요셉·모세·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약속은 그들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대를 때루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때라도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었다. 이런 그를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믿음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암담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실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 이라고 정의한다(히 11:1).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 양식이다. 믿음이란 언제나 현실과 약속 사이의 절을 매워주는 능력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능가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온통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 사가랴와 엘리사베아,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은 마흔네 이들에게 세 일들을 주셨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본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눅 2:28-30). 거저서 한 말을 통해서도 기대한 자녀들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열한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 때문에 자기 생애에서 기다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랑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게 계신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백 씨 신자녀들 장자녀에 드는 시간까지 기다리며 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영혼의 안락함을 100% 가만히 둔다. 은혜와 기도와 어떤 마음 짐사냥을 세 재단 둘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5분 정도를 휴직하고, 성경을 들고 좌공질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 목사의 길이는 진배와 기다림을 통해 더럽혀진다.

기다림은 열 몇 분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된 기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든든한 기소가 있기 위해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린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을... 그 나라를... 그분의 약속을...

"네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배고 그 말뚝을 바라본다. 좌공질을 아람을 기다림 보다 배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리라 삼초로 좌공질의 아람을 기다림보다 기다리다." (시 130:7)

종교개혁의 사상은 함께 종교개혁의 사상은
주요 사상은 함께 종교개혁의 사상은 (12/15)

제18호 (각월간)
발행일 1999년 5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9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잠실역과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 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Lord-church.or.kr>

CONTENTS

- 1 기다리는 사람들 / 강석역 목사
- 2 지혜로운 여인 / 김경신 집로
- 3 인도하리! 선배자들을 다룬다고 나사/ 김자실 집사 4~5
- 4 특별 / 오일환 편지 6
- 5 귀하고 아름다운 사회 / 박성희 집사 이 문도 주님의교회 7
- 6 교회사회 구약동행 신약 Q & A 8
- 7 우리 한민대 / 형동홍 8
- 8 의화산의 임인회 집사 9
- 9 울어라! / 김동근 집사 10
- 10 인화 11
- 11 시 / 이기용 12

한강

인도네시아에 다오 오고 나선

김자성 집사(16구역)

지난 1월 중 7박 8일간 장순원 권사님의 권유로 신방에 다녀왔다. 신방은 인도네시아의 보루네오주의 적도주성에 있는 오지이다. 신도지 여행은 처음이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의뢰님 등 우리 일행은 60명이나 되었다. 쿡킹에서 1화하고 아침 일찍이 버스를 타고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다. 한여이 되면서 무더위가 심할까니 걱정했다. 길의 포장상태가 엉망이라서 버스가 흔들리는 바위에 몇 번씩이나 차를 멈춰 차 위에 있는 짐들을 다시 옮긴다 하였다. 그냥 서 내려도 다운데 차 위에 올라가 맘을 땀을 흘리며 예를 쓰는 분들도 누구인가? 우리는 신도지에는 차 속에서도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 서로 도와 보며 웃었다. 7, 8시간 달리는 동안 그냥 방치된 듯한 차와 긴다의 길가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이는 것이 없었다. 캄캄해서야 신방에 도착하였고 눈앞에 펼쳐져 서 있는 큰 평원은 기적이었다. 집사와 집사수들과 한두사람의 따뜻한 환영으로 피로도는 늦은 후였다.

그 다음날 아침 집사님과의 만남이 주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영성, 신학교, 교회, 선교교 등이었다. 선교사님의 손이 직접 닿아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눈들의 지도와 메모로 이루어진 자식 같은 작품들이었다.

어느날 아침 신도지나미에 이르렀을 때가기 시작했다는 영음새 '비오' 안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다. 10여년 전 신방에 두 아들과 함께 오셨을 때는 허허벌판에서 신도들 신을 수 없었고 있었다. 집사님 한 분이 불쌍히 맨날로 3년 간을 다녔다고 하셨다. 정말인 신정오 하나하나를 대담했다는 어느날은 물러 버렸을 때 하시면서 '내가 온바니 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지!' 하고도 말하셨다고 한다. 천기들을 사서 그곳이 어떻게를 대리고 정글로 들어가 큰 나무를 베어 이용해 대고 옮기는데는 온통 어제가 깨지고 지고나고 게다가 벌레까지 몰렸다고 한다. 그 작을 깨면서 10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하우하루 하의 을 팔았고 지진으로 돌아와 시멘트 바리를 사서 우리 신원 배서 갔다 그 뒤로 아침에 깨고 보면 온몸이 바위에 찢어 서서만 바라다 사방의 형세가 그려졌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지도 시현한 대로 내가 참 몸으로 믿을 만하나요?"

3일 동안의 의료진료봉사를 정글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을 치료하였는데, 우리도 다녔다. 현지인들은 우리들을 보자마자 배는 뱀이 되었다. 병에 걸렸다. 짐들은 조차하였고도 살림이 되고 밭이랑 밭이름이 아득했다. 한때를 보아 나쁜 웃음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면 간담이 얼어 눈이아 팔로 안고 지고 하고 웃었지만 신도 다하지는 못 했다. 우리가 구원했다는 말이 외적 한 표의미이다. 치료 받기 위해 온다는 존재를 몰아줄지 않았다. 어디 서서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었고 신방들의 지도와 온배 치고 한 걸음씩 시작하였다. 눈들은 까맣고 속 눈들은 왜 그렇게 지진 깨지듯 큰 웃음을 얻었지만 어려서부터 애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

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셋째날 'Long house'라는 곳에 갔다. 롱하우스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집에서 보기에 수는 수로 같았다. 땅에서 올라오는 승기를 막기 위해 지면에서 10미터쯤 높이에 지어졌는데, 목판이로는 들에서 100년 동안 안개는 단단한 나무로 덮였길 뛰어서 한쪽은 공중 서있고, 한쪽은 간간히 날 가자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 받기 위해 출몰이 서 있었다. 날이 많으신 분들도 조종해 끈기 있게 기다리었다. 의사 선생님은 실 사이 없이 바쁘셨고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자만으로도 약을 조제하는 이철희 간호사님도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우리도 조금조금 도우며 환자들을 위해 한바탕 기도했다. 함께 끌어안고 간질한 모습으로....

떠나기 전날 밤 도착도를 위해 놓고 현지인들과 함께 동그렇게 정글에서 게임하고 화고 뛰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화고 소리를쳤다. 거기에는 한국인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었다. 우리 모르는 오직 하나하나의 자나임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금방이라도 불이건 내리 걸은 밤하늘의 별들은 신방에 빛났고 해커가 이루어 온다는 더욱더 되었다.

우리가 차가 준비된 차량들을 통해서 온바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고도 보았었다(사자 4:11-12). 현지인의 사방을 건넌데 선교사님 내외분이 그 오시에 들어가 그 주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부방하는지.... 할 일이 없기 길가에 앉아 있던 젊은이들을 게 생명을 걸고 한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이다. 예배를 드림이 없었지만 모르지않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 아이를 업은 엄마가도 있었다. 평정 모두 큰 기리를 걸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면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말없이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침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 드려지는 찬송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단순한 삶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는 폭발력이 많이 보다.

두 아들은 믿음의 신념들, 믿음의 사귀들을 많이 만났다. 집사와 신도사님이 직접 찾았을 적이 온바니에서 오바니에 방문한 현지인 목사님은 직 선교사님들과 머지 같은 사람이었다. 또 열렬한 환객 가운데서 아들을 깨워 큰 큰 마음을 보아 믿음의 환경은 문들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 남을 거 기쁘게 하려고 했는다고" 그리고나서 아들은 온바니 "내가"라 부인하고 오바니 하와 복을 보았을 때에 한나를 말로는 담대히 자하고 깨신 리케한 신도사님. 큰 아들의 말로는 오바니 지어주었다. 신방을 위해서라면 자아들은 아들이어 쏟아 아들은 아바라 세게 지고 여러 일일분들도 두 며칠을 같이 하고 지치면서 머리 땀땀 큰 믿음의 사귀들을 붙어 아바르면서 마라강까지 신방을 떠나는데

날 새벽 찬송가 370장이 커서서 들리는 성령 제로 한 번 사방하는 나의 남편 하동욱 집사, 이 모두 하나하나 지치고도 보시기에 사방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사랑하시어서 추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었다. "호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와 찬양할만하다 할렐루야!!"

한글학회 제 18호

특집 ■ 가정의 말 오월의 편지

이야 한다. 이리할 때 너는 그 본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변하면 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와 진리가 있어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하고 애가된다면 너는 천사에 갈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어 무력감이 아닌, 행복과 창조적인 될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 병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라는 곳, 기록교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가졌던 아버지가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변했는지, 무슨 논리로 믿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이 너를 책망해 줄, 너를 창조하신 분이냐는 사실이...

1. 창조주는 존재한다

'有'가 '불'로 될 수는 없고 '無'에서 '有'가 생성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모든' 혹은 '있는'의 '有'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태초의 有'가 변화를 거듭하여 '태초의 有'가 되었고 그것이 '현存'의 有'가 되었으며 '현存'의 有'는 '未來'의 有'를 초래할 것이다. '有'란 '被造된 結果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태초의 有' 역시 피조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태초의 有'를 창조하였을까? 그 누가 X라고 가정하여 보자. 그리고 X에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X 역시 '被造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X의 X'를 또 같은 X 연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태초의 有'를 창조한 X 즉 '그 누가'를 소위 '創造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創造主'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을 의미하게 되니, 그리고 '無'에서 '有'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현存'하는 모든 有'는 그 존재 자체가 전연 부정되어 있을 것이다.

2. 창조주는 '불'의 形態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창조주'는 과연 '有의 形態'로 존재할까? '불'의 形態로 존재할까?

'有의 形態'로 존재한다면 '현存'하는 有'는 전체가 창조주의 동일, 동격이 될 것이다. 즉 '創造主'가 변화하여 '태초의 有'가 되었고 그것이 또 변화하여 '현存'하는 有'가 되었다는 것이 되니, 다시 말하면 '創造主'는 이미 '태초의 有'의 존재가 되는 '被造된 結果物'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創造主'는 결코 '被造된 結果物'일 수 없기 때문에 '創造主'는 '불'의 形態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3. 창조주는 '無'이다

'존재하는 모든 有'는 '불'의 形態로 존재'하는 '創造主'에 의하여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無'라고 믿고 인간은 '불'의 形態로 존재하는 '創造主'를 '無'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 形態로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無'이기 때문이다. 그 존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따라서 '創造主' = '無'이다.

4. 창조주는 '神'—神이다

인간의 수많은 '神'을 창조하여 왔지, 창조된 인간 '神'에 의하여 피조된 인간이 '神'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創造된 신'들을 숭배하며, 그 어느 것이든 '태초의 有'에서 변화되어 왔든 것이 있어, 짐승, 태안, 인간, 나무, 사물과 창조자... 그러나 '神 = 創造主'는 창조주로 볼 때 '神'이란 신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神 = 神'이라 신 '創造主' 이외에 또 어떤 '神'도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創造主 = 神 = 神—神'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밖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확신할 때, 신앙심은 커지는 것이다. 신앙심의 크기와 삶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근심, 불안, 걱정 등 반대현상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임영환 전도사(유년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주일의 아침을, 때로는 것이 형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고쳐이기는 신만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시간과 피곤한 몸을 바침으로 주의 발 아래 얹힌다.

때로는 자신의 재물로서, 때로는 힘으로, 노래와 춤과 미술과 기도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아날 할 없는 성경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다. 때로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위대한 거인의 의지처럼 당당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뭇 줄 때를 그저 평범한 한 교무로 보았으나, 마음속 깊이 천천히 성실하게 정경화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조종도 아닌사람 같지 않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기에 멀리오는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보여졌으나, 성경대로 믿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그러나 무가 있어오는 눈부신빛은 가슴에 담 속 깊은 곳에 한나함의 우상한 정미등을 쏠출 끝없는 꽃들이 잠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난다면 저 어떤 가슴 가슴들을 이 부를 부를 말함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의 눈물 위에 말함의 씨앗을 뿌리는 이분들을 교회에서 소 회회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저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회화를 성일 때 오늘의 우리 선생들을 기뻐할 수는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인도하고 성도들 가르치신 그 말들은 실하여 무한 할바 어떤 사람으로든 듣지 세워주고 또다시 태어나는 내 세대에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우리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저들을 떠맡고 우리보다 나은 목양인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짧고 다시 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시간과 내세입니다. 이 여정 중의 많은 이들은 때때로 허락과 인내, 믿음의 사랑으로 자신의 미망회 날 바를 하고 지혜롭게 주님 길을 따릅니다.

부디 우리의 가르치는 이 어린 영혼들이 자라서 믿음의 권력을 차지 하여 이세대를 성복하게 하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장미꽃의 자식을 길들여 복을에 귀감인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영도도 되고, 거미어 사귀어 사랑받기도 주님이 가장 기뻐 하기에 이 길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이 뜻깊은 어린이들의 날에 주님의 어린 양을 이끌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목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린 영혼을 위해 늘 기쁨 이라 하는 선생님들께.

한글학회 제 18호

선언 Q & A	고 회 소 식
Q : 목사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신앙수준에 따라 다른대로의 완전된 삶이 따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으로 완전히 믿음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이 없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은 무엇일까요? (조혜정 씨·55구 안)	■ 매체 · 학술 · 입교식 4월 4일 부흥회(제4)로 제례 · 학술 · 입교식이 있었다. 유머해설식은 5월2 일 3부 여배우극에 가행되었다.
A : 세상에 태어난 이래 생명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어떤 생물이 아니라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과정 뜻지 않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성장되는 나 이를 결코 외간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 아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써 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로 되어가는 길은 고난이나 고통이며 이와 한 사이에서 항상되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조존을 어찌에 두기가 없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인으로부터 헌신의 삶은 끊임 없는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인내로 그러한 삶의 훈련을 쌓아 가기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은 매우 시련만 일어사며 시작 되어야 합니다. 매우 작은 것부터부터 할 줄을 아는 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재만이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임영 수 목사)	■ 예배시간 변경 예배시간이 편의성이 3부로 나눠 드르진다. 1부 오후 7시30 분, 2부 9시30분, 3부 11시30분. 찬양대원은 모두 1시간으로 각각 단된다.
	■ 담당인사 사택비율 섹고 담당 4월 12일부터 칠요일-목요일의 사택비를 섹고는 임영수 목사가 담당한다. 평요일, 토요일에는 종전대로 부와복귀자들이 담당한다.
	■ 강연회 · 강습서 독학안식 강연회 · 강습서 독학의 안식이 4월 22일 존슨 박 의회에서 가행되었다.
	고 동 정
	▶ 결론 이상은 안주시서 · 이해자 권사 3년 속인
	▶ 하계절 장로 / 34구역 - 신원순 권사(남한울 새집 모진) / 34구역 - 이태호 성도(성림읍 집사 부친) / 55구역 - 유관남 성도(이기적 집사 모진) / 69구역
	▶ 이사 김종국 · 김희복 집사(8구역) / 강남구 삼성동 진풍마 1-303 (514-0980) 시종규 · 홍헌민 집사(27구역) / 강남구 전담동 (3444-1789) - 주용규 · 이현욱 집사(4구역) / 송파구 잠실동 주공A 529B-608 - 신형삼 · 김희철 집사(42구역) / 강남구 역삼동 한올마을 202-05 (2226-3035) 장동훈 집사 · 비탄주 성도(40구역) / 수원시 팔달구 영평동 35-1 (329-0030) 원곡2동 원곡2-1002 (3133-29-09) 김관화 집사(51구역) / 강동구 명일동 건물 64-505 (44-5722) 김찬호 집사 / 강동구 길동동 천진 71-703 (485-9138) 김효석 목사 / 남포구 잠실동 219-1 301 강경명 집사 / 강남구 논현동 223-8 201 호 (51-2598)
	▶ 강령서 조정 -공동 이문열 이사(송파구) / 초지역 개천3 (3021-9830) 최익환 방직지 집사(40구역) / 리미티온 지역 3층 귀근 이재희 · 임시주 집사(50구역) / 아이리브트루스트 해피리건

두번어 사는 일

한 재방모 더듬으러 살아기는 전쟁의 시각 양생인

"세상엔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없을까?"

아이버 울프 북극곰 지니는 "나를 죽이는 어리한 본 분이 어떻게 다가가 서자갈에게서 구출되었는지"라는 글은 읽었다.

"있는 눈은 있지만 더하기 하기에 알지못한 사람에게다." 자신의 처사 와 자신을 보거나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똑바로 뜨거게 하는 거는 본래 보거나 혹은 마음먹는다."

"세상이 상할때까지 모든 것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없겠는가. 그럼 이변을 위해 어떻게?... 인생사의 모든 것을 취하고 도망치고 저의 더 무다는 인생을 위해 도망치고 돌아오겠다"

이번 봄날 보다 우렁창이 갑자기 자기 사자를했다. 다 차이라 하면 그 때 그 때에 들어갔고 다들 오래 기다린 후 뒤로 달려가지 않았더라 면 신념이란 것은 그저 믿는데 주어진 것이다

살아가는 법칙처럼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 올줄 같이 기발한 생활을 출몰하여 지었습니다.

자~ 무엇이 어릴것 무엇이 뽀얗냐!?!? 삽시간에 얻어다가 가기로.. 말하면 는 자살생 병자에게서.. 들을 수만 있는 자살병 환자.. 웃으며 자카저스네 ..이런 이야기 만들어 산사람 자세하고 재미있을것인가?!(특히 웃음 (말)).. 잡은 나그네 목자의 양들을 하루속히 조선으로 되돌아 오 십시오.. 우리 함께 더불어사는시다.

(6면에서) 보고 전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다가서서 죽음 이외의 확실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스피노 산에서 유체적인 케아(cero)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두 단계의 생활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소중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내재한 것을 세상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각에 갇혀 한 것은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동역자들과 팀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필사에서도 돌보아 주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집중 직전에는 마음을 씻고 온갖 것을 잊고 복음만을 전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야 합니다. 다른 한 일들을 나누어 맡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동역자간에 팀워크가 잘 맞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자신의 만류에 있어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나누는 것,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끄러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필요를 주고 나누어줄 관계라는 것을 로스피노 산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원한다면 그와하는 주님의 말씀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자제하여 어떤 것까지든 배려하는 귀한 사상이었고, 결국 크리스찬에게 복귀하는 것은 선덕이 아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또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저 결단만 있어도 큰 위로를 받을 때는 환유물들을 통해 부흥사 사건이 더 많은 사건과 찬양의 제복들로 호소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마리아의 관세 국수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느끼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찬송드리고 그 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성의 자비와 아버지 신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하여금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린도후서 1:3-4)

한울한울 제18호

지혜로운 여성

김진필 장로(59세)

5월은 이름에서 '게절의 여왕' 혹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5월이 모든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절기요, 일한 의무 다스려서, 어머니, 스승의 날 등 모든 기쁨과 희망, 고마움과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5월이 여성과 연관되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지혜로운 여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현대로부터는 여성들은 급변하는 세대로 특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각만으로는 어쩔지 읊조리고, 귀머거리 해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요즘 여성들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지혜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여성이 지혜를 쌓아서 일과 재물을 주의 사랑에 대한 여정을 충숙하게, 헌명함과 여성 본래의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여자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성이란 할 수 있다"라고 학살에 가두한 마음을 주시는 가 하민, 잠언 31장에는 지식과 직업을 통한 정경으로 해를 달인한 파르티나 나라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문을 번영케, 번영시키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면서 노년을 멋지게 사는 지혜로운 여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특징은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지혜로운 여성은 자기가 처한 곳, 즉 가정, 교회, 사회, 직장 그 어디에서든 가문을 빛내고, 남편을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났고, 사랑을 이루고 기쁜 모든 사람을 구제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여성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어떤 공식을 제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를 때 행복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때로 우리 자신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은 자신을 위한 행복을 맺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난이나 학위를 따는 성취에서 얻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에서 얻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행복이란 모든 최상의 방법의 행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인과 절망감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작은 조각조각 문제를 해결을 함께 하는 지혜를 구해봅시다. 우리는 우리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때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며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빌 4:6-7).

지혜로운 여성의 둘째는 인생과 삶을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생명이기에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합니다.

올바라 다비다라는 베드로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 는 신령과 구주하는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행 9:36-43).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 하여 다비다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부와 성도들이 훌륭한 딸로 다비다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삶과 사랑을 사랑한 그녀의 생명을 칭송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즉 모든 일이나 좋은 일을 다 사랑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지혜를 통한 믿음과 절기의 보고받고이며, 그 보고받고자 하는 열시는 기쁨과 열심입니다. 이 보고받고의 열심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셋째는 아름다움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힘은 본문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쓴 "속사랑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여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기르고 금을 차고 아름다움을 옷을 입는 의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속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의 취치 아니할까 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값 없는 것이니라"(벧전 3:3-4)라고 하였습니다.

성서적인 여성이와 같은 마음에 평화를 지닌 여성입니다. 여성에게도 각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과묵하고 표현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이란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본능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을 양육하고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합일이 베푸는 사랑을 지닌 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성에게 일대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성에게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여성다운 것이 없지 만 때로 맞고 싶을지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인간화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로 인하여 반드시 여성 복회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돌보고 상담하며 열육자의 절정과 가정의 문제 등을 치료하는 여성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다운이란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성의 강한 힘은 유순함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다운 여성,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함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함께 웃고,
함께 믿고 다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다운 여성,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하루를 힘써 다 함께 웃고,
함께 믿고 다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다운 여성,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한글을 배워18

특집 ■ 가정의 달
오월의 편지

부모님, 감사해요

이한아(초등부)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품으로 저를 맞아주시는 부모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돌도 없는 외딴방 한이예요. 존댓말만, 그것도 매달 뽀뽀 하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매우 어색하네요. 하지만 매일 뽀뽀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요.

항상 저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꾸지람도 다 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쁜 자원으로 더 열심히 나오는 발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제가 보는데 사랑의 메시지로고 생각하네요. 해례해..... 제 꿈이 장인과 의사로서 이백은 일부터 시작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저가 저과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곳을 갖게 하려고요. 또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신비하고 예쁜 자연을 담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요. 또 어머니 다 말이에요.

저들이 엄하게 저를 꾸짖을 것이 이제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애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일가, 전에는 솔직히 화남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엄마! 그렇게 무섭고 엄하게 애정을 가르치려 하신나 금금했어. 저가 안듣는 거야 아니냐. 그 금금함이 모두 사랑이었나고요. 엄마는 제와도 똑똑하게 먼저 애를 붙여 줄 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었나. 덕분에 지금은 기분 좋게 잘 자고 있습니다. 이백아! 거꾸로 저 자신 같은 마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일등이 거꾸로 사람이 되려는 그 끝없는 인생에 대해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는 하하고 건강한 부모님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이한 아님 졸업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연애 집사(40구역)

"착한 아이야, 너는 우리 집 보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진 지사! 너는 저의 감격이 되어 아이를 향해 백도 돌며 되던 말들이 네 배에 두 배로 갈라졌어. 아내는 출생 커져서 이젠 내가 너를 안아주는 내로 꼭 파란색 빛깔 열마가 되어 버렸구나. 오늘 아침, 신한 돌상 앞까지 학교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엄마를 위해 오시락을 물들이며 꼭 붙여 놓은 감자죽이 있는 정말 끝내주어라. 꾸지람만 듣는 감자는 입 속에서 실랑이거렸어. 썸 뽀뽀 마저할 수 있는 속이 아닌 실은 은밀한 내 본성이 진솔하게 까발렸고 그날 밤에는 아이를 담을 입두도 안났지만, 식욕 역시 저러 높은 즉 한 그릇에 예뻐하고 뽀뽀와 슬픔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는 '마미마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서 맛있는 도시락주세요'라는 메모가 지 날게 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지 눈물이 났을 때였다. 딸의

한 한결에서 이만큼 밝고 외적하게 자라네 내 모습은 엄마의 기쁨이 오 줄거예요. 때로는 어쨌든 네 넓은 등에 기대고 싶었거니와 하 면서 말이다.

새 학년이 되어 내 배짱을 받은 얼마 후 너와는 썩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지.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맛있는 것 같이 해 주세요" 당당하고도 자랄스럽게 소개하던 너의 눈빛에서 친구 원용이는 반에서 '잘못' 한 아이임을 알아차렸고 순간 엄마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음흉하고 책적인 남짓은 여사를 달기보다는 리브가 열어서 뽀뽀한 여친 아픔을 얻은 것 같기에 너를 볼 때마다 나심 늘 걱정스러웠었는데, 광덕인 원용이를 위해 난 친구들과의 불의 앞에 정의로는 피하지가 터 트라기라 분개했던 너의 터프한 모습에 엄마는 기쁨의눈을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 삼촌애 엄마가 네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손님 하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기에 오늘도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받은 동안 이 아들에게 하고 깨우친 영혼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학생을 만나게 하시라,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지혜롭고 착한 일에 미련하여 들고 그들을 잘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바르른 신부를 만나게 하시라, 생명을 걸 만큼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믿음의 선배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머니의 기쁨을 잊 못며 함께 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딸을 만나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아들이 더 자라면서 지구 간한 믿음대로 살지 못해 때로는 방황한 채로 되려 그 돌 돌아오는 날이야!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값진 보배임을 알려 하소서, 그러나 자라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결연 한 지 되게 하소서 아멘."

원목(原木) 크리스찬

조경주 집사(26구역)

너와 나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 있네. 그것은 바로 너와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인간일 지라도 그 속에 묻혀져 있는 것에 따라 또다시 분류될 수 있을 것이.

육체적 건강만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 영적 건강을 무시하여 회신을 버려지는 사람, 신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회교도 집사로 하나님께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과 입으로만 믿는 무신론자나 무종교 사람.....

가치의 말을 찾아보면 내면 세계로 참 생명의 열매 '말씀'에서, 머 리로써, 마음으로, 인생에서, 결혼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등을 알고 싶지는 않구나. 아니자르서, 인생의 신념에서 네게 붙여 주는 그 생명의 열매 '현실'에서 의미(의미)지 가진 대안(대안)이, 즉 너는 인간 그 자체로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애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구나.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뢰하여 피조되었고,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 너와 나에 인간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며, 기독교도든 헌신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

[illegible]

시

심판관

이기를 섰도

돌아오지 않을 자를
위하여

땀을 흘렸다

욕망으로 뜨겁던 손
손술을 내미는구나
모아진 두 손에
두엇을 가졌었느냐

의심과 이기심으로
일컬어지는 내 잔여,
기다림을
채우신다

오늘, 도야와 유대를 위하여

1999. 4. 17

의학적식

두통

엄민호 집사
(신경통증클리닉 원장 · 72구역)

두통은 인류 사회의 가장 흔한 병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두통을 경험하고 있다. 내 쓴예가; 속하나는 바늘 사드의 가사도 안 상통으로 속통한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두통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뇌종양,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인지 혹은 일과성 두통인지를 구별하는 일이다. 여기서서는 중 흔한 일과성 두통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두통은 두통은 근육성 두통으로 불리는 만성두통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두통이다. 20대 이상 성인에게 일과성, 일과성 편두통, 머리 뻘뻘, 뻘뻘, 근육, 어깨 등이 쑤는 이라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지속적인 병이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서 더욱 악화된다. 이 두통은 머리 뻘뻘이 부쳐지는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상태에서 일어나는 두통이다. 그래서 초가에는 인지를 하거나 자거나 낮잠만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완에 의해 일시적인 완화가 되는 잠을 잘거나 자거나, 이완에 의해 완화가 된다. 두통은 두통이 나타날 정도로 심한 통증이다. (두통은 두통) 악성두통을 해서 부차적인 생기기 하고 악을 증진하여 두통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는 신장장애 치료법이 효과적이다. 머리의 혈관을 지배하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 있어 심상신경절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된다. 심상신경절이라는 두통부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침상하여 두통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머리 근육 및 목 근육을 기온에 따르는 긴장상태로 인하여 일정한 두통으로 그 유발점을 정확히 찾아 근육이외적으로 근육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완치를 한다.

만화

(유니텔에서)

음악 이야기

한국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고

지난 4월15일 한국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출세 비평가 겸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다. 사실 나는 1967, 68년 공연 때 스태프 약 60의 정도의 공연을 도와졌지만 객석에서는 공연을 감상할 기회가 없는 때도 있었던 일이야. 이번엔 꼭 눈치껏 받아보았다는 기쁨을 얻었다. 이 뮤지컬은 지난 1965년 명성황후 시라사던 때 주연을 맡아 부른 바도 있었으며, 그후 1967, 1968 뉴욕 브로드웨이, L.A. 콘서트홀을 공연하고 다시 유럽과 일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1864년 조선의 25대 명성황후는 후사가 없어, 왕의 유언에 따라 부친을 수 한 명을 13세 인조가 후한 대원군의 섭정 아래 고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만민은 고종을 도와 어부지师 받은 일을 하였고 결국 1873년 대원군의 섭정을 폐하고 친왕을 선포하도록 돕는다. 그후 1875년에 갈라호 조건의 발전을 폐하고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 한다. 이러한 황후의 정책은 일본의 정변에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1895년 10월19일 새벽에 인종을 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린다. 이 무적되는 국경과 아픔을 아리아는 느낀다. 일제의 자리에 놓이려는 대한제국 이리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가 있고, 그걸에 반발한 그리하여 부르는 '그리운 군진', 궁정의 근위대장 왕제의 아리아 '나의 운명은 그대', 그리고 명성황후의 두 개의 아리아가 있다. 특히 '사바라는 사람을 위해 죽어 하소서'라고 노래하는 황후의 노래는 깊은 감동을 준다.

한편 이연희의 공연은 한 수 없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1막에서의 무사직할 공연이다. 한국 전통무예 특색을 가미한 안무가 아주 인상적이다. 이번 공연의 최고의 배우는 단연 명성황후역의 이연희이다. 20년이나 되는 공연을 혼자서 해내면서도 깨끗한 목소리와 긴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프로로써 철저한 자기관리와 인지 학습을 잘 했기 때문이다. 『명성황후』의 연출은 홍준익이다. 연출은 이연희의 '여수사'이다. 작곡은 김갑수 작곡이다. 무대미술과 일러스트를 대우가수를 작곡한 것은 『명성황후』가 첫 뮤지컬 작품이다.

소제의 탈상선선 한국적 정서(원하와 이연희) '여수사', 뛰어난 연출(홍준익)과 가창력 있는 가수들의 훌륭한 연극(이연희)과 『명성황후』는 한국 뮤지컬계에서 모범적인 작품이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한창 무사직할 재해하고 인기자들에게 도전 정신과 용기를 주는 뛰어난 작품이었다. (김동훈 72 집사)

화랑정월 제18호